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경쟁력 향상을



김 동 재
송정부회장 대표

취임사에서 말했듯이 농업정책에 많은 할애를 해주며 국민의 정부를 선언한 새 대통령께 무한한 기대를 해본다. 매스컴에는 연일 기업도산과 실업자, 강도, 절도 기사가 대서특필 되고 있는 것처럼 IMF시대에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 말만 잘하면 명사가, 투기만 잘하면 재산가가 될 수 있었고 노력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바보가 됐던 시절이 있었다.

농촌에서는 이농가가 많이 생기고 모두 도시로 떠날 때 농촌을 사랑하는 진정한 농부는 농촌에 남아 농촌 발전을 도모해 왔다.

UR협상 WTO로 국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정부에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하여 양축가는 정부 지원을 받아 수동식 사육에서 자동화로 바꾸면서 모든 양축가는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사후대책이 없는 규모의 확대와 자금 지원은 많은 양축가가 빚에 허덕이고 생산비만 상승함으로써 국제 경쟁력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대통령께서는 농업을 중시하고 농축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농어가 부채경감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부채경감보다는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시장 유통정보, 전산화 등을 통하여 농업이 투

기 대상에서 제외되고 진정한 농업을 위한 양축가에게만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모든 농업 기자재는 국산화가 되도록 투자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원된 축발기금은 외국기자재 도입에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가 외국 기자재 의존율이 높아짐에 우리의 경쟁력은 더 떨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종계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회장 허가, 종계등록에 의무를 다하였고 법 테두리안에서 종계업을 영위해 왔다. 하지만 일부 종계업자나 계열업체는 등록되지도 않는 산란계 닭으로 종란을 생산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미등록된 닭에서 생산된 병아리로 삼계탕을 만들어 외국에 수출했다고 농림부에서는 자랑했지만 법을 어겨가면서 수출한 업체가 자랑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법을 준수하는 행정이나 사업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본다.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작한 계열사업은 기업의 이익만 앞세우는 사기업보다 생산자 단체인 축협을 통한 수평계열사업이 활성화되어야 사양가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통령, 농업을 귀하게 여기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양계**